



지비의 산

### “어린 꽃들이 네 향기 높고 크니...”

—고통받는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얼마쯤에 내내 세로로 감칠지 못하는 꽃들이, 배고픔에 창백하고 무서움에 눈망울 젖어 있는 할아버지 꽃들이, 너희들의 오늘은 저울 영축산의 때마침 연애를 갑구나, 너희들의 내일은 허기진 곰속의 텅빈 하늘 갑구나, 스산한 너희들의 하루하루를 만든 사람은 부끄러운 어른들이구나, 이 세상 이편과 저편에서 작은 욕심 큰 욕심으로 내일을 욕되게 하는 어른들이구나, 너희들의 맑은 눈빛을 잃고 사는 어른들의 탐욕이 너희들의 오늘을 배고르게 하였구나, 사랑도 희망도 잃고 사는 탐욕이 큰 죄가 되고 있구나, 대한민국 남쪽 평 영축산의 작은 절에 들려 온 너희들의 아픈 소식은 문수보살 관음보살의 울음이야 리.

이 세상 본래 깨끗한데 이 세상 아이들은 본래 해맑은데 너희들의 맑은 눈빛을 잃어 버린 세상은 어둡기만 하구나.

#### 그림이 있는 불교 에세이

이 세상 고통받는 어린 꽃들이, 너희들의 향기는 아무리 감추어도 감춰지지 않는 것

이 세상 고통받는 어린 꽃들이, 너희들의 향기는 어른들의 탐욕보다 높고 큰 것이나, 오늘의 배고픈 울음이 더이상 슬픔이 아니게

오늘의 허허로운 잠자리가 더이상 가난이 아니게, 이 세상 어른들은 더이상 부끄러운 어른이 아니게, 너희들의 향기가 더욱 높고 커야 하리.

너희들의 향기 이 세상을 온통 뒤덮어야 하리. 유니세프 보살님들의 손에서 부끄러운 어른들의 손에서 어두운 탐욕의 싸움터에서 너희들의 향기 큰 꽃으로 피어나야 하리.

수 안 (스님·선화기)

이 그림은 수안스님이 유니세프 카드로 내놓은 선화 2점 중의 하나다.

## 무 상

## 주부신행담



결혼한지 3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자 나는 유혈 무형의 압력(?)으로 직장을 그만 두었다. 일심으로 아이갓기에 노력해보자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풍다는 약도 먹고 병원도 다니면서 정기적인 검진과 보살을 했다. 인연이라 자라는 아이를 기다리는 초조함이란 드러내고 누구에게 호소할 수도 없는 일이다. 집착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된다는 의사의 충고는 머리로는 알고도 생각하면서도 가슴으로는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날 친정어머니께서 한글 영인본(지장경)을 주시면서 “너는 기도 하심이 부족한 것 같으니 열심히 지장경을 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시간이면 읽어야 하는 자체가 아니라 지장경을 읽기위해 시간을 내야한다”는 말씀과 함께.

4번째 인공수정으로 아기가 생겼으나 행복은 불과 몇개월 “요즘은 지장경 안 읽나” 유언처럼 남긴 남편의 말을 떠올리며 나는 오늘도 무상의 도리를 배운다

아 할 더 두려운 일이 있었다. 93년 겨울로 돌아왔을 때, 우리 아기가 ‘집안이 비좁아라’며 뛰어다닐 때였다. 그때 남편은 본인이 작곡 소망했던 사업을 아버님의 도움으로 시작하려고 같은 업종의 사업장에 취직했다. 지나치다 싶으리만큼 일에 의욕을 보였고 그 직장의 상황으로 거의 새벽에 귀가했다.

바르 그해 연말 남편은 작은양의 하일을 했다. 발견당시도 평소 치질 기운이 있던 사람이라 업무를 늦추어 아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불과 산일만에 하일이 심해져

경소 내 신앙에 별 관심을 보여 오지 않았던 그였는데... 그때 나는 그동안 그를 위해 현상만 갖추고 내 남편 명을 구하려는 물질적 욕심만 부렸던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래, 그 사람을 진정 살릴 수 있는 부처님 기르심이 있는데...”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도 안돼 온몸이 차다차진 남편은 다시 응급실로 옮겨지다가 영영 저 세상으로 떠났다. 아버님께서는 ‘별 남으면 효도부터 할게요’라는 평소 그답지 않은 말씀도 드셨다. 마치 유언처럼 그가 내게 한 말로 나는 지금 더 가까이 부처님께 가있다. 부처님이 살 동안 거룩한 그 길을 찾고있다. 삶이 나를 지치게 할지라도 이제는 생사연의 무상도리를 알기에 더욱 열심히 불도를 찾을 것이다. 이 두 자 (불입사 신도)

이 할 더 두려운 일이 있었다. 93년 겨울로 돌아왔을 때, 우리 아기가 ‘집안이 비좁아라’며 뛰어다닐 때였다. 그때 남편은 본인이 작곡 소망했던 사업을 아버님의 도움으로 시작하려고 같은 업종의 사업장에 취직했다. 지나치다 싶으리만큼 일에 의욕을 보였고 그 직장의 상황으로 거의 새벽에 귀가했다.

바르 그해 연말 남편은 작은양의 하일을 했다. 발견당시도 평소 치질 기운이 있던 사람이라 업무를 늦추어 아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불과 산일만에 하일이 심해져

바르 그해 연말 남편은 작은양의 하일을 했다. 발견당시도 평소 치질 기운이 있던 사람이라 업무를 늦추어 아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불과 산일만에 하일이 심해져

바르 그해 연말 남편은 작은양의 하일을 했다. 발견당시도 평소 치질 기운이 있던 사람이라 업무를 늦추어 아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불과 산일만에 하일이 심해져

◆ 10 Samana, both plough and sow, and having ploughed and sown, I eat; thou also, O Samana, shouldst plough and sow, and having ploughed and sown, thou shouldst eat.

‘I also O Brahmana, both plough and sow, and having ploughed and sown, I eat,’ so said Bhagavat. Then the Brahmana Kasbhara-dvaga addressed Bhagavat in a stanza:

“수령자여,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먹어라” 스승이 대답했다. “바라드바자여, 나 또한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먹는다” 바라드바자가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대의 밭에도, 경기도, 소도 볼 수가 없구나. 그런데 그대는 어째서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 갈고 뿌린 다음에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바라드바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Thou 당신은 (you의 고어), ‘sown (sow의 과거분사형) (-어 씨를) 뿌리다. ‘goad (가축의) 몰이마대, ‘ploughshare 보습(경기날), ‘penance 참회, 속죄, 고행.

한영우 기지

### GRAND FANTASIA

좋은 품질이 편안함을 만듭니다

화려했던 낮만큼이나 소중한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편안한 휴식으로 다가서는 이름-그랜드 우아한 분위기, 세련된 디자인으로 더욱 편안하게 다가갑니다. 늘 사랑이 넘치는 공간! 그랜드로 오십시오.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듯 아름다운 꿈이 펼쳐집니다.

그랜드 침대, 이래서 좋습니다

- 침대 전문 회사** 20여 년 간의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침대를 위한 한결같은 고집해 온 전문 업체입니다.
- 좋은 품질, 편안함 가격**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체 제품에 25mm 강철을 사용한 하드 스프링 공법으로 제작되어 가장 좋은 품질의 침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가격대로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무 매트리스 사용** 각기 다른 2개의 매트리스 사용으로 압력을 배로 전달 수 있으며, 수명이 2.5배 연장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 다양한 모델** 전문 회사만이 가능한 다양한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한 모델마다 선택의 폭이 넓어 더욱 자유롭게 개성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꿈의 나라를 떠다

### 그랜드침대

• 본사: 경기 파주시 광탄면 마장2리 180-18  
• 전화: 0348-945-2233 / 팩스: 0348-945-9607

홈플러스

### 생탈속의 불교 ㉔

## 올가미에 걸린 산토끼가 되기 싫거든

생겨난 것은 어떤 것이라도 끝이 있다. 태어난 것은 죽고 세운 것은 무너진다. 이 세상, 아니 우주 어느 한 곳에서도 늘 그러할 것은 없다. 우주까지도 팽창과 수축, 탄생과 괴멸의 과정을 밟는다.

늘 그러하지 않은 까닭에 일체는 고(苦)이다. 언제나 젊고 싱그러울 수만은 없으니 고이며, 늘 풍족할 수 없으니 고이다. 만나면 헤어져야 하고 헤어지면 만나게 되어 있으니 고이다.

고는 삶 그 자체와 딱 달라붙어 있다. 동전의 앞 뒷면과 같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하다는 사실을 관덕지게 거부한다. 내게 있어 서만은 상주(常住)로 불멸(不滅)이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늘 건강하기를, 늘 소유하기를, 늘 사랑하기를, 늘 즐김하기를 원한다. 생겨난 것은 어떤 것이라도 그럴 때가 있다.

는 사실에서 자기만의 예외이기를 희망한다. 이 세상에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시냇물처럼 잠시도 쉬지 않고 흘러 간다고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갈애(渴愛)라고 한다. 지독한, 아주 끈덕진 욕망이다. 사랑과 미움, 만남과 헤어짐, 탄생과 죽음, 생성과 소멸이 언제나 짝을 이룬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내 곁에 늘 함께하기를 목마르게 애원한다. 불기능에 대한 집착이다. 그러나 그 집착이 크면 클수록 고는 비례적으로 커진다. 삶과 고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는 없다.

이 끈덕진 욕망에 굴복 당하면 마침내 그 사람은 올가미에 걸린 짐승 꼴이 되고 만다. 발버둥치면 질수

록 올가미가 조여들어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끝내는 목숨을 앗아가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버린 나무라도 그 뿌리가 상하고 흔들하면 다시 싹을 내듯이 욕심을 부려 없애지 않으면 자꾸자꾸 고통이 일어나리라 하셨다.

사람의 욕망은 삼년물보다 빨리 자라고 쪼기기도 그와 같으므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경전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다.

‘갈애를 극복하면, 욕심에 이끌리지 아니하면 고(苦)는 연일 위의 물방울이 굴러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느니라.’

생겨난 그 자체는 고이다. 상주불멸하는 것은 없으므로 그것이 바로 고이다. 그러나 고통 면하는 길이 있다. 연일 위의 물방울이 굴러 떨어지듯이 고통 떨쳐버리는 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생겨난 것은 어떤 것이라도 그침이 있다는 사실. 이 세상 만사에 늘 그러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그것만이 갈애로부터의 해방, 고의 떨어지지 않음을 가능케 한다.

흐르는 시냇물을 영원히 막아 둘 수는 없듯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영원히 내게 잡아 매 둘 수 없다. 잡아 매려고 애를 쓰면 할수록 내 인생은 올가미에 목이 걸린 산토끼와 같게 된다.

흐르게 내버려 두라. 어차피 흐르게 되어 있는 것이고 막을 수는 없으니까.

늘 그러하지 않은 까닭에 일체는 고이지만 늘 그러하지 않음을 받아들이면 고는 고가 아니게 된다.

협찬: 한용수·남상규